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로써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간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HYUN

발간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학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지난 주 화요일(15일)에 있었던 지도자 기도회

지난 주 화요일(15일) 오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갈릴리움에서 2002년도 제1차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가 있었다. 먼저, 위임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4절~28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철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충현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울과 같은 생애를 살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예배 후에 계속되는 기도회의 시간에는 각 위원회별로 미리 작성된 기도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2차(5월14일), 3차(9월24일) 기도회를 통해서 충현의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어 기도의 불결을 일으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매시지

그리스도를 따르자(눅 9:23)

'나를 따라오라거든' -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분을 따르는데 있어서 고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소명은 정말로 간단하여 명쾌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말이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그분의 명확한 소명을 듣는 일은 그분을 진실로 따라가는 척도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다. 이 요점은 단체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결단적이다. 이것은 '다른 것에 충성하던 것을 모두 포기하라'는 뜻이며, 본질적으로 집, 전통, 일 등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시몬과 안드레가 자신들의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또한 세리 마태와 사가모도 부와 지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사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주님은 죄를 버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앞서야 한다는 선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조금의 타협도 없는 직설적인 선언을 하셨다. '누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며, 소이 범죄하면 질라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쁘다'고 하셨다(마 529~30). 그러다, '회개와 믿음'. 이 둘은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회개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으며, 회개없는 천국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유토피아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삶에서 죄를 버려야 한다. 빛진 자는 재물을 이행해야 하며, 속인 자는 돌이켜야 한다. 회개 이것은 진실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행 11:18).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행 3:19).

또 한가지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은 '자기 의지'와 '자존심'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두고 포기하는 일이다. 영혼의 왕좌에 앉아 있는 그 주인 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충성하는 일이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는가? 우리가 그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가?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비를 도말하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취하 내딛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자취하 놀이하시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 주께서 자신을 따라오려면 또 다른 한 가지를 버리라고 하셨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사형장으로 끌아가는 자부심을 지는 버림과 포기를 요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소명을 곧잘 애용시키고 약화시키며, 십자가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주위하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이 배반 타락의 늪에서는 주님이 주신(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다. 모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목격하고 완전한 순종을 요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죽이며 주님께 나아간 바울의 믿음을 주목해 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두 단언하노니 나는 남보다 죽노라'(고전 15:31).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골 2:20)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특징 -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의 원칙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동일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버림과 포기를 요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소명을 곧잘 애용시키고 약화시키며, 십자가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주위하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이 배반 타락의 늪에서는 주님이 주신(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다. 모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목격하고 완전한 순종을 요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죽이며 주님께 나아간 바울의 믿음을 주목해 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두 단언하노니 나는 남보다 죽노라'(고전 15:31).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골 2:20)

2002년 단기 선교의 의미

2002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 충현교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가는 곳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꽃피고 여기저기서 기도의 모임들이 있더니 드디어 충현선교총론(CMTC)의 막이 올랐다. 그동안 말로만 하던 1000명의 단기선교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방만했던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먹고 마시는 데에 소요했던 비용을 모아 1000명의 단기선교단을 출발시켰다. 근 5년 가까이 묵묵히 들었다. "다 아는 이야기"는 왜 자꾸 해, "뻔한 이야기잖아", "너무 재미가 없어" 등의 비난과 불평에도 아랑곳 없이 충현의 강단에서는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듣고 또 들었다. 드디어 두렵고도 두려운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한바탕 시작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직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출발로, 하나님의 도약의 기쁨으로, 진정한 헌신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각자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고 말씀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교우집회는 진정한 말씀의 성찬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매우 귀로운 시간이다. 말씀 앞에 자신이 날마다 파헤쳐져서 나의 죄된 모습을 늘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진정한 생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말씀 앞에서 나 자신과 죄성을 늘 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전국 복음이 모든 민중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그제야 골 3:10)라(마 24:14).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정진히 땀 흘린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우리들이다. 이제 우리는 금년에 1000명, 아니 그 이상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것이다. 이는 누구의 책임도 분위기 때문이 아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니 우리의 할 일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많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같은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선교를 하려면 장기선교를 해야지 단기선교가 무슨 효과가 있나?"라고 물었다. 대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 위주의 선교를 할 것이다. 장기선교에서 오는 배당들을 막고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만을 전하고 돌아 올 것이다. 단기선교사를 파송하여 1년씩 있게 하고 그렇게 한 나라에 3년 정도 사역한 후 나라를 바꾸어 3년 정도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수단과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경향을 봤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단기선교 필요도 없고 단기선교도 없을 것이다.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긴장감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는 절박감 속에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닌 주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를 모르는 종족을 찾아서 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충현교회에서 하다가 된 것이다. 수모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얼마나 행복하고 유쾌한 일인가!

김 의 (청, 선교위원장, 선교위원장)

*다음주 필자는 교구위원장 임명장 장로입니다.

The Word (John 1:1-3)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What a powerful Bible passage! It's so fresh and life giving. It's a wonderful light that shines through to the soul. This is the Word eternal. The very first verse opens the same as Genesis 1:1, "In the beginning", but this Bible line is much stronger. Genesis 1:1 tells us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John 1:1-3 tells us that the Word existed before creation. The Word was there before the world was there. In other words, this Word was not part of creation. This Word pre-existed before time began. This Word is eternal and with God. Jesus Christ is with God all the time.

The Word became human,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n. 1:14). Jesus Christ was unique, for He was God from all eternity and yet joined Himself to sinful humanity in the Incarnation. Jesus opens our eyes and brings us to see eternal things. He leads us toward God's unchangeable love. The Word explains to us the things of God. This Word defines truth and speaks to us about the grace of God. Amen! This Word is with God. This wonderful Word is always in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God. That's why you and I, through this Word, can approach God. This Word became flesh, stays with us, and make us connected with God. Our word can join with His word.

Jesus Christ made known God's revelation secret. He explains to us what kind of God He is, what kind of love God has, and how we can change to go into eternal life. The Bible tells us, "No one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God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Jn. 1:18). Since God is Spirit, no man has ever seen God in His essence, His Spirit-being. The Word explains God. Jesus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 and upholds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When He had made purification of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Heb. 1:3). What strong assertions of the deity of Christ.

Jesus Christ is God, "I and the Father are one" (Jn. 10:30). The Father and Son are in perfect unity in their

natures and actions. At the Feast of Dedication in Jerusalem, Jesus asked the Jews why they wanted to stone Him. The Jews answered Him, saying "For a good work we do not stone You, but for blasphemy; and because You, being a man, make Yourself out to be God" (Jn. 10:33). What a wonderful blessing believers have in the Word. Because of it we know exactly who Jesus Christ is. We know who God is. We grasp the mercy of God. This Word explains Jesus. When the Lord prayed, "Now, Father, glorify Me together with Yourself, 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was", we understand.

My dear friends, we have the wonderful Word. He is an absolute eternal being. He was the Word before He was man. He was the Word as He was the Son of God. Yet, He is called here the Word rather than the Son of God. He is God and the Word was God. This passage declares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our Lord, in the plainest of terms. It places Him with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 Son is, therefore, not inferior to the Father. This strong doctrine clearly explains that the Word, Jesus Christ, is God. It is life eternal to know it. It is faith to believe it. In relation to creation, Jesus Christ is an absolute mediator. He is a faultless messenger. He is a perfect Savior. He is God's manifestation.

Don't you think you are blessed beyond measure to receive such a wonderful bless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is earth and the heavens.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This Word came to us and gave us life. Through Him we are able to go to God and eternal life. Do you have the Word in your life? Do you have it in your personal, family, and business life? Or is the Word only a part-time thing with you? I hope you hold this Word fully and don't ever release it. I hope you live with it during every moment of your life. If you simply accept by faith this Word, it will give you power untold. Let me ask you one last thing, did you read your Bible yesterday or today? Please don't miss or ign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life—the Word. God bless you. 🙏

영원한 말씀 (요 1:1~3)



김성관 목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 그 이전에 계셨던 말씀

오늘의 본문은 얼마나 능력이 가득한 성경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새로우며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지나며 비추는 놀라운 빛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구절인 창세기 1장1절에서도 “태초에”라고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의 성경구절은 보다 더욱 강렬합니다. 창세기 1장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1절은 말씀이 태초 전에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말씀은 창조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하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정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되었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영적 존재로서의 그분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렬한 역설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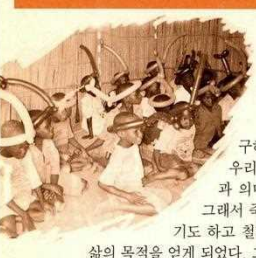
라” (요 10:30). 아버지와 아들은 그 본질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게 일치하는 분이십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왜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 10:33). 그들의 말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하나님의 나타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보다는 ‘말씀’으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명백한 용어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치에 자리 매김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께 비해 열등한 분이 아닙니다. 이 강렬한 교리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창조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흠 없는 전달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현현(顯現: 명백하게 나타나시거나 드러내심을 뜻함, 역자주)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여러분은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이야말로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과 가족, 그리고 업무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단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존재입니까?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는 오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 베푸시길 빕니다. ▮



진리를 누리며 실천하며...

강 기 업 (신교사)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다양성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나는 이런 시절을 암울하게 지냈다. 그래서 죽음도 생각해 보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에 회의를 품기도 하고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는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누리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지위, 명예, 환경에 이끌리지 않는 누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한 가지 있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불만스러운 환경에 눌러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억압하는 주변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시골의 논두렁 밭두렁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러다 커다란 소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네를 탔다. 눈을 감고 그네에 몸을 맡겨 편안하고 자유롭게 흔들흔들 하다가 문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환경에서 오는 모든 부자유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듯이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은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어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또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린다.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듯이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 즉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한다. 그래서 금년에 교회에서는 천 여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은 증거하기를 하고 전파되어야 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상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은 땅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출현교회가 단기선교를 통해 성령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성령이 말하는 인간 ②

인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形象)

최근의 신문지상을 통해 보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육체만으로 그 가치를 따진다면 인간은 단지 일곱 개의 비누와 한 개의 못, 그리고 2개 개의 성냥개비와 벼룩을 제거할 만큼의 유험이 전부이므로 그 가치는 소나 돼지에게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참 가치는 보이는 인간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인간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가?

창세기 1:26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다. 여기서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기독교 초기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하였으나 바른 해석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J. Calvin)이 히브리어 원문의 직역을 보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비슷한 단어인 '형상'과 '모양'이 연속으로 나열된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한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임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물론 '형상'과 '모양'은 유의어이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체렐'은 '자르다, 베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떤 대상을 조각한 상(像)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고, '모양'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데무쓰'는 '비추는'의 의미를 가진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러므로 '형상'과 '모양'이란 말을 덧붙여 사용한 까닭은 이 형상이 참으로 원형을 '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26에서 '형상'이란 말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은 원형이고 인간은 그의 모형이라는 사실이다. '모양'이란 말이 강조하는 바는 그 상이 모든 면에서 원형과 일치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유래한 이 두어는 놀라운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이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닮은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을 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가 되는 이유이다.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하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인생은 존귀한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답게 가치있게 살아야 하고, 그 귀중한 형상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제가 지난 6월에 미국에서 매일 본 내 마음 정도가 놀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스리랑카로의 선교지를 옮긴 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미국을 생각해 하는 스리랑카는 인도 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곳도 미국과 동질하게 내건이 있는 곳이고, 미국의 무슬림들이나 부대를 향한 불심이 강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경제수준과 교육적 환경이었지요. 이제 막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스리랑카는 관광국가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화려한 면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기 도 하지만 교육적 또한 굉장히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와 같은 선교활동은 우리가 있어서 그 열광이 제때 말라진 어떤이 사색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지금까지의 4개월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곳에 왜 보내셨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주눅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성경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해답은 주셨지만, 제가 죽는 것이 왜 그리 힘이 들었지요. 저를 감싸고 있는 자아지 단단한 껍질은 깨는 것이, 육신과 지존성을 내려놓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진 길 줄 따라 감기를 소원하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이곳에서 함을 모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4개월의 준비기간을 주신 주님께서 저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동안 이슈가 없었어 궁금하네요? 그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질타가 감 사한 소식은 그것이 '사람의 관심'이라고 믿어 듭니다.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곳의 떠돌이들 부려져 할 정도로 한국에는 주님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들 감기에 유의하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퍼지기를 소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2년 1월 13일 스리랑카에서 최은아 올림

기도제목입니다.

1. 빌라도 성령충만하도록
2.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기쁨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3. 스리랑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4. 감기병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5.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1차 증현선교훈련(CMTC)

1차 증현선교훈련이 1월 19일(토요일)과 1월 20일(주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금번도 단기선교에 참가할 성도들은 이 훈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 (1) 주일반 / 주일 오후 6:20-8:20(90분강좌 및 1박 수련회)
▷ 1차 훈련: 1월 20일 - 3월 24일
- (2) 토요일반 / 토요일 오후 5:00-7:00(90분강좌의 10강좌 및 1박 수련회)
▷ 1차 훈련: 1월 19일 - 3월 23일
- (3) 집중훈련 / 평창동 2일
▷ 1차 훈련: 2월 25일 - 26일(90분강좌의 10강좌 및 1박 수련회)
▷ 2차 훈련: 7월 29일 - 30일(90분강좌의 10강좌 및 1박 수련회)

훈련장소: 갑철리물

훈련비: 10,000원

말씀묵상

일시: 2002년 1월 5일 토 / 본문: 마태복음 3:1-12 / 제목: 선지자 세례요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유진 (목사, 청년1부 지도)

1-2: 세례요한은 유대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는 것으로 왕이시자 천국 그 자체 이신 예수님의 도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3, 11: 세례요한의 사명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아보고 있었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절정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한 것이다. 해방은 자유의 감격이며, 모두가 기뻐 뛰며 감사하는 환희 그 자체임을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오심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나라가 독립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 세례요한은 이 일을 위해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살았던 겸손한 선지자이다 (11). 말라기 이후 400년 간의 예언이 없던 시대가 지난 후 요한이 나타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었다.

7-12: 예수님과 같이 요한도 당시의 종교적·사회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세리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욕이라 할 수 있는 '독사의 자식' (창3:15)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 특

히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했으니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요한은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한다. 요한은 메시야가 오시면(12) 그들이 알곡과 쟁쟁이를 나누고 쟁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적용: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잘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진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민족을 위해 종교적 행위로서 적당한 봉사를하면서 적당한 착하게 살고 있는가? 종교인으로서 메시야를 몰라보는 영터라는 아난가?

기도: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종을 다스려 주시고 매 순간 순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각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게 하소서.

이재호 (집사, 청년1부 교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딤후 6:11)으로 부르심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추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청년이며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러므로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전 11:9-10). 우리에게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의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 자기를 부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충언교회 지체들 모두가 이 길을 기꺼이 걸어야 할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도 찾지 않은 길이요 험터라도 몹시도 좋고 험난한 길이기엔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때에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복록:

청년 1부를 통하여 제가 성찰한 부분은 말씀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묵상을 통해 신실하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행을 주셔서 묵상을 나누게 하였고, 제 안의 부끄러움들을 조금씩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의 죄를 증오하며, 어려움 때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진실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이제 청년 1부를 떠나지만, 청년 2부에서도 동일하게 만나주시 주님을 기뻐하며 만나고, 후배 분들과 청년 1부에 있는 동안 아침 말씀묵상을 통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많이 만나서서 어려움 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배들에게

어쨌든 한 해를 보내고 성배들을 완수하는 자리에서 여러 성배들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사랑의 말씀 많은 도전을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은혜스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늘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승리와 삶을 보내시길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유추하: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한 주 한 주 심입문 지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영혼을 위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요일을 통해 아주 오래전부터 제 안에 내재했던 성령을 치료해 오셨음을 청년부들 출몰하는 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실희원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제 안

에 있는 미움의 상처 깨닫게들을 깨뜨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때 주께서 이루실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해하:

이제까지 제가 섬겨 온 목숨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기뻐이 자원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환경 또한 허락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사역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인생의 큰 선물을 허락하셨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를 기뻐이 주님께 드리세요. 아니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최동현: 주님께서는 사역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들에게 묻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닮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자신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그것은 그분을 얼마나 아는 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이 커진다는 것이고, 사역이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초자연적이면 중의 하나이고, 일을 많이 하는 것, 혹은 일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십시오. 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서 그분을 배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때 시간을 드리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도도 매우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때는 가장 잘 시간을 드리고, 일이 아닌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찰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실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씁니다.

최혁훈:

이 절충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분이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20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성경공부'입니다. 매우 겸손하게 그 때에 순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공부는 말씀을 통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저를 결심하게 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제 삶의 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은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두 사제를 회복시켜 주었고, 회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나무에 새겨진 나비처럼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듯이 더 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오래 뒤에 이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젊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11월 11일 금요일집회

하나님의 약속

성경역사의 시작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신약을 보면 신약은 구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구약이 없이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질문까지 아무 것도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자칫 구약을 히브리 족속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구약부터 시작되었다.

히브리 족속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이다(창 11:10-32). 국가도 민족도 없이 유목민으로 흘러다니는 이들에게 동질감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만드는 요소가 두 가지 있었으니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 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그렇다. 구약의 주인공은 히브리 족속의 국가적 이념이나 영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두 번째 요소는 그들의 회고록이다. 그들의 회고록은 족속마다 달랐다. 여호수아를 말하는 족속이 있는가 하면 삼손을 말하는 족속이 있었다. 어떤 족속은 룖을 말했다고 어떤 족속은 요나를 말했다. 각각의 족속이 다른 회고록을 말했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내용은 공통점이었다. 바로 이 공통점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였다.

구약은 히브리 족속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며 인류 구원의 역사이다. 일반 역사책은 족속들이 이동할 때 그 족속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끼어 있음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유혹이시는지를 기록한다(창12:1-3). 구약이 히브리 족속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인 결정적 이유가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 족속'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구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음을 지난 주에 이미 배웠다(요일 1:1).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창 17:7-8) 그 약속을 정녕 이루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시키셨다(사 45:23, 46:11).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율법의 책, 도덕의 책으로 보지만 구약은 은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다. 구약에서는 작가는 아브라함, 야곱, 요나 등의 인물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크레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려금 희망을 갖게 해준다. 참으로 구약이 없이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확인할 수 없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변 경윤' 자매를 소개합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당동에 살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충현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니 어색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모두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에 조금씩 친근감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제 곁에 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좋

아서 더욱 성실히 믿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새가족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담담 전생명의 따뜻한 관심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울 집 (새가족부 통신원)

+ 양요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1교구 김복희 권사(여79세) 골다공증이 심해 1년 이상 투병 중입니다. 체력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교구 최수영 집사(남55세) 간암 수술 후 자가 치료를 해왔는데 입원하여 암 제거 수술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믿음으로 평안한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4교구 이해선 집사(여45세) 교통사고로 척추 수술을 하였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요추 수술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되어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사]

매클레이의 내한과 고종의 선교윤허

1882년 한미수교가 이루어진 후 한국에서 파견한 사절단이 가우처를 만난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한국선교의 염원으로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가우처는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미감리회의 선교사 매클레이에게 한국선교를 위해 예비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미감리회 해외선교부 역시 가우처로부터 한국선교에 관한 요청을 받고 일본 주재의 매클레이에게 한국탐방을 요청했다.

이에 매클레이는 당시 주미미공공사 비행과 주한미공공사 푸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884년 6월 24일에서 7월 8일까지 2주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그가 내한했을 때 한국의 정치는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으로 불안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일본에서 이미 몇차례 접촉한 바 있는 김옥균을 만나 그의 방문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일본어로 된 편지와 한국에서의 사업계획을 적은 간단한 설명서를 건네 주고, 그것을 국왕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기를 기대했다. 그는 믿음과 기도로 기다렸다. 그날 오후 김옥균은 공식적으로 매클레이를 예방하고 국왕에게 제출한 단원서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것을 축하하였다. 매클레이는 김옥균을 통해 고종의 선교윤허를 전달받은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로 통한 선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매클레이는 며칠 뒤 서울에 머물며 선교사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회를 지을 대지를 물색하였다. 그는 주한미공공사관 근처의 경산전 지역을 매입할 수 있도록 푸트 공사에게 부탁해 놓고, 7월 8일 서울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아직 기독교에 대한 교금이 풀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지의 땅, 한국에 들어갈 용기를 주시고, 김옥균 같은 협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미감리회가 한국에서 교육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다음주일 찬송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아라벨라 캐더린 행키는 은행가의 딸이었는데 18세 때부터 여정원을 대상으로, 그 후에는 동양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사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투병 중에서 조금씩 회복되자 '옛날 이야기'라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1부는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소재목으로 4행 8문으로 되어있고, 2부는 '들려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50문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에 감동받은 월리엄 하워드 도온이 이 시의 1부에서 4개 절을 택하여 1867년 작곡하였다.

그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1절 오랜 옛날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영광과 사랑에 관하여 전하여 주고, 막하고 곤고하여 무지막하고 더럽혀졌으니 어린 아이들에게 알릴새 주세요.
- 후렴 오랜 옛날 이야기, 예수님과 그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 해 주세요.
- 2절 놀라운 구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등에 대해서 잘 알아듣게 말해 주세요.
- 3절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이야기를 늘 듣기 원합니다.
- 4절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좇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주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 주세요.

간절하면서도 낮고 은은하게 음미하여 불러야 하며, 말씀에 깊이 청종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불러야 한다.

(찬양위원회)

감사

우가원 (중등1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족과 친구들을 주심.

감사합니다.
저에게 항상 기쁨을 주심.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성하게 해주심.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가원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새해 첫 주일, 새로 편성된 반의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는 교사의 마음 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 과연 어떤 아이들이 우리 반으로 편성되었을까? 내심 착하고 활발하면서 또 잘 듣는 아이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다른 한편으로 불안한 것은 '혹시 말쑥꾸러기 문제가 아를 만나지는 않을까? 내지는 '잘 안 나오는 아이'가 걸려서 출석률 때문에 골치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진 후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문제아들을 만나서 난감해 할까, 아니면 착한 아이들을 만나서 수월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고 기뻐할까?

물론 진정한 교사라면 착한 아이라고 좋아하고 문제아라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교사는 오히려 상대하기 어려운 아이를 자진하여 맡거나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히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말 잘 듣는 모범생들에게 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착한 모범생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이들이 다투기 쉬우리라는 교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뿐이다. 만약 예수께서 말 잘 듣는

기대와 불안

김성겸 (전도사, 중등2부 부지도)

아이들만 생기시고 말 안 듣는 문제아들을 곤란해 하며 꺼려하셨다면 우리 역시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종교 내년에 진급하여 올라갈 아이들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는 교사들이 있다. 물론 나도 포함된다. 그리고 혹시 그 아이들이 소위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알려져 있을 경우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놈들, 올라오기만 해봐라. 확실히 잡아주마."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라는 것이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 변하는 일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교사 자신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아이들을 휘어잡을 대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자. 물론 어떤 교사가 의도적으로 다투기 편한 아이들을 원하든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단지 우리가 가르치기 편한 아이들을 모범생이라고 부르고 선호하면서, 반대로 다투기 힘든 아이들을 무조건 문제아로 넘겨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우리 교사들의 모습은 옳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산길 해고 골짜기 해매서던 목자 예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건 도전이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만났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럴 수 있다. 교회에서 교사 직분을 무서히 감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라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catechism

18. 예배의 대상과 방법, 요소에 관하여

(1) 예배의 대상과 그 방법

본성의 빛은 하나님께 계시하는 것을 보아 즐긴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 마치 제정신인 것임이다. 그 방법은 그분이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성이나 사단의 지사를 따라 만들어지면 어떤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기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 기독교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천사들이나 죽은 성도들 또는 그 밖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는 어떤 다른 중보자를 통해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2) 예배의 요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이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이해와 존경, 겸손과 열성,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도우심을 얻어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만약 감사를 내지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치에 합당한 모든 사물과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위해서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야 하며,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의 영혼적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반적인 요소는 성경 본독과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듣는 것과 또한 받은 마음으로 시편을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령을 앙양하게 하시라고 합당하게 부는 것 등입니다.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금식과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김복배 전도사·청년부 부지도)

질문과 응답

미가(Mic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우선 '미가'를 읽으실 때에는 1장~6장과 7장을 구분해서 읽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6장까지는 그의 '대중적인 설교'라는 각도에서 읽으시는데, 1장~3장은 각 장별로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임을 생각하시고, 4장~6장은 '이스라엘의 회회와 회개 촉구'에 대한 내용임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장~3장까지, 각 장별로 묘사된 죄와 심판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한 시작으로 읽으시려면, 1장은 이스라엘 국가라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죄와 심판, 2장은 이스라엘 각 백성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죄와 심판, 그리고 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각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적으로 실제적인 회개의 고백과 그 분의에 앞장서고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장은 미가의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미가'라는 개인의 신앙과 가치관이라는 측면으로 읽으십시오. 7장에서 1장~6절은 그의 '개인적인 묵상', 7절~20절은 그의 '간절한 기도'라는 각도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선지자를 읽으실 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미가'를 읽으실 때, 참된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들의 죄악과 심판의 문제는 결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는 진정으로 회개서 간절히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인가' 주께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쁨의 남은 자의 하물을 넘기시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은 바에 더치지시니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람에게 성실을 배부르시어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니이다'(7:18~20)

마지막으로 '미가'를 읽으시면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느끼면서 읽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림을 보듯이 이해합니다. 다른 선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4절에서는 주님의 심판을 초지일척 녹아 내리는 산의 모습으로 묘사했으며, 1:8절에서는 예언자의 안목과 마음을 '들개같이 애매'하고 '바코같이 애매'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착취와 부패의 타락한 모습은 '내 백성의 가족을 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빗기고 그 뼈를 쪼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는 식으로 묘사합니다(3:2~3). 그의 표현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시대적인 죄악들을 진솔하게 명확하게 지적하는 통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진정한 탄식과,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구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동욱 목사(송관교회지도)

